

위키와 뉴스, 언론과 위키

박장식(TRAINHOLIC)

발표자 소개

- 위키백과 = 7년 차의 화석 편집자
- '고3인 주제에' 프리랜서 시민기자
- 오마이뉴스, 아파트신문 등 대중/전문매체에
교통, 도시개발, 청소년 전문기사 송고 이력
- 대표기사: 오마이뉴스 연재기획 [옆 동네 1318]

제1주제 위키가 언론?

가장 간단하면서도 심각한 질문.
위키위키를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?

제1주제 - 위키가 언론?

- 가장 빠른 사서(史書)가 되는 위키위키
- 교차검증이 순식간에 이루어짐
-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추가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음 => 익명성과 중립성을 가진 제보, 폭로 언론으로써의 기능
- 극단적인 ex) - WikiLeaks
- 표준적인 ex) - 위키백과 내 '사건사고' 문서

위키리크스 사진 부분

“정보자유법 만큼이나 중요한 저널리즘 도구가 될 수 있다.”

타임 지 - 위키리크스 기사

- 위키위키 사이트 최초의 '폭로 성격의 언론'
- 가동 초기에는 자유로운 편집 허용
- 각 국가의 'Secret History, 기밀의 역사' 를 보존하는 위키위키의 '보존으로서의 기능'
- Doomsday file - 운영의 원동력

국내에서는?

- 기사를 모두가 자유롭게 수정하는 위키 등장 - SNS보급과 함께 발전한 '위키�트리' 가 있음
- 위키텍트는 기사 자체의 가십성과 오보로 신뢰를 잃음 - 집단언론의 단점의 예시
- 위키뉴스 - 살아있니? 친구야?
- 오마이뉴스 - 위키텍트와 비슷한 참여형 언론이나 편집진의 검열 존재 -> 위키텍트보다 신뢰가 높으나,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음

위키의 아카이브 장치로서의 능력

- 나무위키의 '세월호 참사' 등의 문서는 국가 재난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사, 발생상황에 대한 아카이브가 마련되어 있음
- 위키백과의 '브렉시트(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)' 문서는 국내 언론뿐만 아닌, 해외 언론의 보도를 주석으로 사용해 한국어로 된 아카이브의 마련
- 자연스러운 보도자료, '세 줄 요약' 의 완성

위키의 '언론화' 활용법은?

- 위키트리의 경우 부정확한 사실확인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
- '나무위키' 는 취소선으로 대표되는 사건의 부적절한 추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- 사건을 넣는 부정확한' 언론 코스프레' 는 비판받는 주제가 될 수 있음
- 아카이브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돌아볼 수 있는 장치로서 위키가 대두되어야

제2주제

언론이 위키를?

언론이 위키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
흘렀다. 하지만, 위키를 ‘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?’

언론이 활용하는 위키

- 위키백과의 경우 ' Wikimedia Commons' 를 운영 - 사진과 음성, 동영상의 자료실
- 영세 언론사를 비롯하여, 국내에서 얻기 힘든 자료가 필요한 언론사가 사용 중
- 위키백과의 내용이 언론사의 설명으로 사용되거나, 언론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함

어떻게 쓰고 있나

- 많은 내용의 '요약본' 을 위키백과나, 나무위키를 통해 얻는 기자가 많음
- 잠시만의 반달리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, 반달리즘에 대해 '위키백과의 의견' , 내지 '위키가 문제' 라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언론이 많음
- 이는 위키위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서도, 역설적으로 언론인들이 위키위키를 사용하는 기형적 결론으로 나타남

어떻게 써야 하나

- 사진은 '기브 앤 테이크'
 - 사진자료를 사용한만큼, 언론사에서 사진 아카이브를 제공하여 위키미디어에 부족한 사건의 사진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
- 내용에 대한 왜곡이 없게
 - 위키위키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'아카이브'
 - 여러 번의 교차검증,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이런 문서가 원래 이런 내용이었나? 확인할 필요가 있음

제3주제

언론과 위키가?

**언론이 위키를 쓰고, 위키도 언론을 넘보고 있다.
그렇다면 상생 방안은 없는 것인가.**

상생, 그리고 WIN-WIN

- 언론사와 위키위키가 상생하는 방법이 있다면?
 - 언론사는 특정된 기자가 작성하여 편집부가 검토, 정리, 수정하는 방식
 - 위키위키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, 일부 사용자들이 문서의 정리를 하고 있음. 검증된 사용자들이 '봇' 을 이용하거나, 문서 이동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.
 - 둘 모두 '실시간 매체' 라는 공통점
-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두 매체

상생, 그리고 WIN-WIN

- 상생하려면?
 - 상호간의 사진 사용 – 간단한 방식으로, 단순히 언론사의 계정으로 사진을 업로드
 - 언론의 위키에 대한 이해 – 가장 중요문제
언론이 위키를 일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자료로 생각하지 말고, 모든 사용자가 이용자, 제작자를 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
- 국가의 언론과 각 국가의 위키미디어 지부가 협의를 맺는다면?

감사합니다.